

로마서 3 강

로마서 1 장 16 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절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 절을 한절만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 장 16 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주 간단한 메세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믿는 자. 구원. 이게 능력이죠.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믿는다는건 뭐냐? 구원이 뭐냐? 제가 컬럼비아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구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알긴 아는데 표현을 못 하는거야. 우리가, 우리가 표현을 못해도 믿으면 돼요. 아무 것도 몰라도 믿는 사람이 세상말로 장땡이에요. 이게 믿음은 하나님께로 오는겁니다. 몰라도 믿으실 수 있어요. 저는 저 어릴 때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할머니들이 잘 믿더라고요. 아멘, 아멘도 아니야. 아멘. 잘 믿는데 뭐 많이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멘을 안하더라 말이에요. 이게 뭐냐하면 안다고 믿는게 아닙니다. 믿어야만 알게 되는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얼마 안되 가지고 주님이 오천명 먹이고 진리를 얘기 하니까 다 도망가니까, 너희도 가겠느냐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즘 같으면 이런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없나? 그러는데. 뉘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뉘게로 가오리까. 나는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나이다 그랬어요. 안다 그러지 않고 믿는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믿음, 믿는게 축복입니다. 믿어지는게요. 그때 뭐 얼마 안됐을때요 베드로가 주님 따라온지 얼마 안됐을 때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인줄 어떻게 압니까? 믿은 거예요. 아멘? 겸손한 자가 믿으면 좋은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 성경을 알게 되는거예요. 믿음이 들어와야 성경을 알게 되는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성경을 믿게 되니까 배우게 되는거죠. 많은 신학자들이 먹고 살라고 연구 하는거는 믿는거 아니예요. 여기에만 쳐넣은 거지. 먹고 살기 위해 생계유지로 교수로서 그걸 유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이라는건 이방인을 통틀어서. 유대인 외에는 전부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외에는 전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구원 받아서 여기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왜 말씀 공부합니까?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또 죄를 자꾸 짓다 보면 마귀가 야 네가 무슨 구원 받았냐? 의심을 준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확실히 해야되요. 복음에 대해 확실해야 되고. 내 믿음이 확실해야 되고. 구원이 뭔지 알아야 되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믿은 다음에 아는거죠? 알고 믿는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뭐라 그래요? 11 장에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되었나니."** 그랬죠? 믿음으로 알게 되는거지, 알고 믿는게 아니에요. 어떤 철학자가 바보같은 소리 했어요.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조금한 머리통 하나 가지고 증명을 못하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철학자들이 요령다고. 그리고 빌리선데이가 야구선수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전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날 있는데 어떤 무신론자가 와가지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 봤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거 봤어? 못 본게 확실하니까. 아 이천년전에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봐요? 자기는 그렇게 물으면 꼼짝 못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 뭐 개 돼지같은 질문이니까 대답할 필요 없죠. 아 지나 가는데, 개가 짖으면 대답할 필요 있습니까? 너 왜 짖냐? 하며 지나가죠. 돼지가 꿀꿀 거릴때마다 뭐 달라 그럴때 우리가 지나가지 우리가 뭐 그 돼지보고 대화를 합니까 어디? 믿지 않은 사람은 돼지나 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러니까 뭐라했냐면은 질문 했어요. 야 돼지야, 그렇게 말은 안했겠지 물론, 넌 네 등뼈를 봤냐? 등뼈를 봤냐고. 네 등뼈를 봤냐고. 아이 자신있게, 아이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등뼈가 있다고. 아 등뼈를 봤냐니까? 엑스레이 어찌고 그래. 그래 나도 예수님 봤다. 엑스레이 보다 더 멋있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 마가복음 있다. 여기 예수님의 얼굴이 환히 보인다. 너 안보이냐? 이렇게 얘기 했다는거예요. 이게 믿음. 믿음이 뭐니까? 믿음은 보는거예요. 세상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죠? 우리는 뭐죠? 안 봐도 믿어지는게 믿음이라고요. 아멘? 이게 영적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공부가요 믿는 사람이 하는거지 믿지 않은 사람은 말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우선 마음을 열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요즘은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요것만 아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도 대답을 못하니까 부끄러워 하는거예요. 진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뭔지

모르는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다이아몬드를 한십 캐럿짜리를 쥐어 줬더니 야 이거 좋은거다 그랬더니, 가지고 있다고 누가 장난감 주니까 탁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거 집는거 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난번에 집회하면서 사모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집회에 왔던 분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아 들었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알아들었데요. 그래 나보고 이상하다며 갔다는 거야. 이게 뭔가하면 그렇게 들리는거예요. 그게 사탄에게 속은게 들리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진리의 지식이 뭘니까? 진리는 누구니까? 진리가? 진리가 바로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진리라고요. 진리를 아는것은, 하나님을 아는게 진리예요. 하나님을 아는거.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난 주일 동안에 성경을 몇장 읽으셨고 얼마나 묵상했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기를 원하는가 이게 되는거예요. 뭐 얘기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보고 묵상했는가? 이거가 바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찾았는가 이겁니다.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 없는 기도는요, 허공을 칠 수 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대화하는게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 안읽고 산에가서 이려고 앉았다가 이상한거 받아온 사람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5 장에.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 장.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참 복음이란걸 한국말로 복음 이렇게 했는데 참 좋은 번역. 참 잘한거예요 이거. 복된 소식이거거든요. 이거 처럼 복된게, 영생을 주는게 얼마나 복입니까? 3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세째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이게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죠. 주님안에 빛이, 생명이 있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절 3절에. 근데 이 말씀도 빛인데 복음이다. 복을 주는데, 진짜 복이 뭐냐? 중국 사람들 그 복자의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생명을 받는 것이다. 영생을 받는 것이다. 복음. 음이라는게 소리가 나는게 이게 들어가죠 이게 들리잖아요. 들리면은 이게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받아 들일때, 영생을 받는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구원을, 이게 왜 그렇게 어떻게 되는건가? 쉽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면은 누구나 다 구원 받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 처음에 구원 받을때 감격해 받는데, 나중에 살다 보면은 그렇게 구원을 받아 놓고도 잊어 버리는데, 왜그러냐?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 왜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냐? 좀 복잡해야만,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해야만, 구원 받은 이게 좀, 그래도 나니까 받았지, 복잡한걸 내가 이해하니까 받았지. 그러나 똑같이 누구든지. 그냥 죄가 있냐? 해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옥 가는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죄를 위해서 다 해결 했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고 3일만에 살아 나셨다. 그럴때 see 하고 믿기만 하면은 그리고 세뇨르 주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어떻게 그렇게 간단한가?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하지만 주님이 볼때는 굉장히 복잡한거예요. 하나님은 복잡하게 일한거예요. 이걸 위해서 4000 년 동안 일하신거예요. 계획을 하신거예요. 그래 가지고 주님이 오셨지 않으셨습니까?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진리의 지식이 뭐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게 없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원 받았다. 이것을 깨닫는게 진리의 지식입니다. 아멘! 이게 있게 되면은 사탄이 아무리 우리 꼴을 보고,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기도할 때, 저는 그럴 때 많아요. 기도할 때 사탄이 너 옛날에 진 죄 자꾸 생각나게 해. 너 옛날에 진 죄에 대해 자꾸 필름을 돌려. 그러면서 야 니가 무슨 목사냐? 그런다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좀 괜히 쭈뼛하고 그래요. 진리의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진리의 지식. 그 말씀 가지고 진리로 대적하면 사탄은 꿈쩍 못하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이 뭔가?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또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이루어 질것인가? 지금 우리가 전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뭔지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구원 받아요. 모르고 영접해도 구원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전하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아주 우리가 능력있게 복음 전하고 부끄러워 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럴때, 나 천국 안가 지옥 갈거야. 그럼 할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부끄러워 한다고. 이걸 전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이 구원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업적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담대한 가운데서 저들을 진리로 인도 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원에 대해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준 계시, 사도바울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계시했습니다.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사도바울에게 계시되었다가 지금까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한겁니다. 로마서가. 그래서 구원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 졌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 찾아 보겠습니다. 첫째, 용서 입니다. 죄 용서 입니다. 구원은 salvation 이죠. 영어가요 이게 굉장히 뜻글짜예요. 구원에 관한 그 구원에 관한 단어는요 꼭 대부분 -tion 으로 끝나요. 구원에 관한게. 다는 그렇지않지만. 대부분. 그것도 참 희한한거예요. 죄 용서가 뭘니까? remission 이에요. 그것도 ion 으로 끝나죠. remission. 우린 보통 그래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줬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우릴 용서 해줬어요. 아멘?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낸거예요.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어딜 찾아 보는 가하면은 히브리서 9장 26 절 보겠습니다. 아 거기 찾아 보지 말고요 가장 좋은 말씀이 죄들을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음, 사도행전. 2 장 38 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죄들을 사함 받았다. 그것을 인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이미 사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침례를 받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 죄를 사했어요. 사했는데, 죄를 사하는 절차가 있다 이거예요. 이미 사하기를 결정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독생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누군가 죄 값을 치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아는 대속이죠? 이게 뭘니까? Substitution, 대체하는거예요 대체. 쉽게해서 뭔가면 substitution 은 뭔가하면 송요셉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지은 행위록인데 저는 새까매요 아주 새까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니까 하예요. 근데 대속이 뭔가? 쉽게 얘기해서 요거 이름만 바뀐거예요. 명폐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이게 송요셉이 된거야. 그러니까 저는(송요셉)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름 바꿨으니까. 이게 대속이에요. 아멘? 대게 전도를 하면 그래요. 좋아요. 지금까지 죄를 진건 다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또 죄를 지으면 어떡하냐 그래? 또 죄를 저도 뭐래요 주님이? 내가 졌다 그래 내가 졌다고.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지으면 육신에 고통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법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서는 내가 졌다 그런다고. 그게

중보기도 하는거예요 그게. 아멘? 피를 가지고. 그걸 알아야되요.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 내가 이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짓게 되면 주의 영광을 가리죠? 그렇죠? 대속이라는게 확실 한거예요. 근데 처음 믿을 때는 확실한데, 나중에 살다 보면 그래요. 내가 그래도 죄 진거 같은데,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은데 이려고. 뭐 지옥 천국 중간 쯤 같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연옥이 나온거예요 거기서. 처음에 믿을 땐 믿었는데, 그 다음부터 자꾸 뭘 알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이 나온거예요. 100% 주님을 신뢰 하자는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이에요 대속.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를 구속하는거예요 구속. 대신 받아 가지고 구속하는데 이게 redemption 이예요. redemption 구속. 우선 먼저 쪽 한번 나열하죠. 구속. redemption 이란건 대신 죄값을 치뤄준 거예요. 결국 이게 바꿨다는것은 죄 값을 치뤄졌기 때문에, 죄 값을 치뤄줬다는건 주님이 죄를 다 받은거죠, 그죠? 그래 가지고 우리를 죄로부터 끄집어내 준거예요. 대속이란게, 구속이라는게. 구속. 네? 그런데 사실 구속 할때 어떻게 되나하면? 죄가 전가(轉嫁) 되는거예요. 전가(轉嫁).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다 옮겨 진거예요. 이사에서 53 장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이 제갈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그 처음에 구원 받고 그냥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어느 집에 전도를 갔는데 그 말을 했어요. 그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켰다는 탁 그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감사한지 그냥 눈물이 나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말을. 그리고 거기서 영영 울었어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요. 나 살려 줬는데. 그랬더니 옆에 같이 갔던 어느 여집사님이 대신 하더라고. 이게 전가. imputation 이예요. imputation 이게 한자로 하면은 이거예요. 전가(轉嫁). transfer 옮겼다 이거예요. 모든 죄가를 옮겼다 이거예요. 옮겼기 때문에 그가 대속물이 되가지고 죽으시고 부활 하시니까, 죽으실때 죄를 도말하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은거예요. 아멘? 구속 받은거예요. 그래 가지고 원래 하나님과 나 사이가 캄캄해 가지고 이게 불화가 되었어요. 불화, 원수예요. 원수. 죄 때문에 원수가 돼 있었는데 이 화목 제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십자가에 달려 가지고 피를 흘리니까 결국 뭐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거죠. 화목. 그래서 주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그러죠? 화목 제물은 propitiation 이라 그래요. 화목이라는 것을 propitiation 이라 그래요. 화목 제물을. 그래 결과 적으로 화목이 된거예요. 죄가 없어서 그런게 아니라 이게 화목이 된거예요. 하나님과 화목 되니까 생명이 내려온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화목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요 우리가? 죄가 없다. 의롭게 된거예요 의롭게. 이게 뭐죠? Justification, 이게 구원의 절차.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아멘?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요. 그래야만 사탄에게 안속아요. 사탄에게 안속아. 그래 가지고 의롭게 됐죠? 의롭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의롭게 되니까 우리가, 우리가 중생이 됐어요 중생. 거듭났다가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 났어요. 중생. 그래 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Regeneration, 중생, 다시 태어난거야. 그것도 generation -ion 이죠? -ion 이죠? 중생이 된거예요. 거듭나. 다시 태어난거예요. 다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났는데 이게 우리가 영적 할례를 받았어요. 영적 할례. 이게 다시 태어난게 뭔가하면 골로새서 2장 보면은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게 뭔가하면?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어요. 손으로 하지 않았다. 옛날에 할례는 손을 가지고 남자의 남성의 포피를 잘라 내가지고 피를 냈죠? 그게 손으로 하는 할례인데. 그래야만 거룩하게 됐다. 선민으로서 됐고 그거 안하면 끊어졌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활력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겐보다 예리해야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찢러 쪼개다 그랬죠? 우리가 말씀, 복음을 받아 드릴 때 그 말씀이 찢러 가지고 우리의 몸, 죄의 몸을 벗어 버렸다. 여기서 할례가 이루어 진겁니다. 영과 혼을 살림으로 중생 되게 해가지고 혼은 구원하고 영을 살리고 여기다 할례를 줘 가지고 몸을 벗어 버리는거예요. take off. 우리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여러번 찾아 보는 말씀인데.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테이프를 달래 가지고 또 계속 들어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 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 버린 것이다.”** 아멘?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뭔가하면 안믿는 자는 영,혼,육이 있는데 영도 죽고 혼도 이제 지옥갈 대기 상태에 있고 몸도 죄의 몸이고. 그러니까 영혼육이 몽땅 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 하지 말고 너희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버릴 분을 두려워 하라.”**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으니까 죄 짓는것 마다 다 영혼에 죄가 되가지고 다 지옥으로 가는거예요. 쓰레기장 가는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에 말씀의 칼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칼이 들어와서 분리시켜 죄의 몸을 벗어 버리는거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죽는 것은 죄의 몸을 벗어 버리는 거야 완전히. 이미 벗었는데 이걸 던져 버리는거고. 그리고 영과 혼은 올라 가죠. 그렇죠? 주님 오실 때.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새 몸을 입고 새 몸을, 죄의 몸이 아니고 거룩한 몸을 입게 되죠?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전부 지옥

가는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이런 사람은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영적 할례. 영적 할례가 이게 바로 spiritual circumcision. ion 으로 끝나죠. tion 이 아니고. 이것도 circumcision. 그렇게 되는거예요. 영적 할례를 받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죄의 몸을 벗은 사람들은 계속 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안에 있는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몸도 죄로부터 멀리 하게 돼요. 그래서 영어로 santification 이에요 sanctification. 또 tion. 거룩하게 된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5 장 찾아 보겠습니다. 26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케 하사”** 말씀의 의한 물. 말씀 안에 물이 있죠. 생명수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럴 때 내가 잘못된거 고치고 씻는거죠? 말씀으로 씻는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도 씻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룩 해지는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미 주님은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 다같이 한번 히브리서 10 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면 거룩하게 되는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거예요. 히브리서 10 장 10 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뜻에 따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것이라.”** 거룩하게 된것이라. 말씀이 됐다 그러면 된거죠? 이게 뭔가하면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하실 때 구원 받은 사람은 이미 거룩하게 된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딜 바라보는가면 주님이 우릴 만날 때 있죠? 그때를 바라 보는거예요. 지금 우리를 바라 보는게 아니라, 내꼴을 보는게 아니예요. 주님은 길게 보시는거예요.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도 주님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변할 것도 아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 옛날 에서하고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도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어요. 미리 다 아시니까. 요즘에 과학자들 유전공학자들이 알잖아요. DNA 보면 조상들이 무슨 병이 있었고 성격이 어떻고? 앞으로 낳을 사람도 어떤가? 다 알죠. 그 DNA 를 조작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유전 공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지고. 그래 복제까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됐습니다. 아멘? 거룩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걸로 알고 거룩한 길로 가야죠. 그렇죠? 아멘. 거룩하기만 한게 아니예요 우리는. 밑에 가보면 14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한번의 제사로써 거룩하게 된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이게 법적인 말씀이에요. 우리의 상태를 보는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렇게 한거예요. 법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지금 bush 대통령이 말이죠 불법체류하는 사람들을 전부 용서한다 그러고 싸인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날 부터 용서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분은 실권자니까. 하나님 말씀한건 그대로 되는거예요. 아멘? 내가 아직 비자를 못 받았어도 그렇게 하면 그날부터 나는 자유야. 아멘?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 자유가 있는거예요. **“너희가 내말을 믿고 내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유케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본다 그러는데 염려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돌보시는걸 잘 모르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 해야돼요.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요. **“주께서 돌보심이라.”** 그가 돌보심이라. He cares for us. 그가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봐준대요. 지금은 지금 상태는 좀 어려워. 문제가 있어요. 주께서 돌보실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대로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염려하다가 되면 창피하고 염려 안하다 되면 칭찬 받고 그런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막 염려하다가 되면 아 됐구나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염려 안하다가 잊어 버렸다가 되면 할레루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용서 하기로 결정 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가지고 대속물이 되가지고 와가지고 죄를 전가 받아 가지고 우리를 정말 노예로 팔렸던 사람인데 마귀한테 값을 던져 주고 우리를 해방 시켰잖아요. 새주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 몸이 우리것이 아닙니다. 우린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피 때문에 화목이 됐잖아요. 화목. 그래 가지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의롭게 됐고 의롭게 되니까 어떻게 돼? 죄가 없어지니까? 죄가 없어진거죠. 죄가 없어지니까 중생이 된거예요. 생명이 들어 온거야. 아멘? 죄가 없을때 주님이 오거든요. 죄를 없애니까 생명이 된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을때 여기 생명을 받으니까 영혼이 생명을 받으니까 이 육신을 벗어 버려야 되잖아요. 육신을 벗어 버려야 돼. 칼로 딱 divide 한거예요. divide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가지고 영과 혼과 골수를 찢러 가르고...”** divide 한다. 분리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구원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몸을 이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성령을 따라가고 육신을 안따라가죠. 아멘? 어릴 때는 자꾸 죄 짓고 그렇지만 점점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죄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죄의 몸을? 야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우리 주선교사님도 봤지만 미국 교회

갔더니 어떤 80 이 넘은 할머니가 나와서 목사님도 있고 그러는데 설교를 하더라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기 모습하고 비슷한 사람을, 그분이 흑인이거든요. 머리로 빠글빠글하게 해가지고 꼭대기에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지고 있어. 이고 있었는데 백화점 가는거예요. 백화점 딱 갔는데 뒤에서 그러는거예요 뒤에서 야 저 옷 좋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딱 no shut up. 그건 너무 사치스러워. 나 욕심나게 하지마. 없어. 그리고 대화 하는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잖아요. 그죠? 내 안이 살아 있으면 이 죽은 육신 하나 못이기겠어요? 이 안이 죽은 사람은 똑같이 죽었으니까 끌려 다니지만은 산 사람은 영혼이 산 사람은 육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죠? 우리가 매일 밥을 먹잖아요. 말씀을 매일 먹는 것 처럼 말이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느낄 수가 있는거예요. 네? 느낄 수가 있어. 그래 가지고 거룩하게 됐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인정 해주거죠 하나님께서? 전부 주님이 한거 아닙니까? 다 이룬거죠?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게 된 우리가 온전하게 됐는데. 영화롭게 됐죠. 영화롭게. 영화로운게 뭐냐? glorification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고 여기 있었어요. 불신자였어요. 세상에 있었어요.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 가는겁니다. 아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너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 배속으로 어떻게 다시 들어 갑니까? 그랬거든요. 그게 육적인 사람이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태안에 다시 들어갑니까? 들어 갈 수가 없죠? 주님 안에 들어 간다니까 저기 하늘까지 싹 올라가 가지고 주님 어딴어요? 나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는게 아니거든. 구원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거예요. 아멘? 그래요 안그래요? 한국에서 미국 비자를 받은 사람은 이미 비자 받는 순간 어디로 와 있는거예요? 미국에 들어와 있는거예요? 아멘. 들어와 있는거예요. 거기서는(한국) 나그네예요. 나그네죠? 영주권 받은 사람들은 나그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린 들어 와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안이 뭐예요 바로? 이게 천국 아니예요? 이게 바로 glorification, 영화롭게 된거예요 우리는. 아멘? 이미 됐고 법적으로 됐는데 이루어지는건 언제냐? 주님이 오실때. 주님이 오실 때 되는거예요. 아멘? 이게 믿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멘?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왜? 할 일이 있으니까. 저기 다 갔다 놓고 다 이거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걸 알기 때문에 ok! 잠깐만 주님, 내가 일 좀

하다 가죠. 이러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내가 하진 않아도 주님 하신 일을 전하는거. 얼마나 쉬워요. 우리보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네 십자가만 지고 가라. 그정도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됐습니다. 아멘? 봅시다 어디 제말이 영화롭게 된건지 성경이 그런건지. 로마서 8 장 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다는 안찾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 찾으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로마서 8 장 29 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 되가지고요 우리 형님이 된거예요.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이미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화롭게 된걸 믿으세요 벌써. 아멘? 하나님 믿는거 끝까지 믿는거예요. 우린 안믿어도 하나님은 믿어요. 믿는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예요. 주님이 바라는게 뭐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신부로서 흠 없이 점도 없이 되는거, 이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거예요. 주님의 믿음으로 되는거예요. 아멘? 주님의 믿음 때문에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는데 주님이 100% 믿으니까 빛이 있었던거예요. 그렇죠? 때론 우리가 못 믿어도요 주님이 믿으니까 되는거예요. 아멘? 믿으니까 되는거. 이게 바로 뭐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예요. 그래서 뭐라 했죠 주님께서?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져라 하셨어요. 우리 안에, 우리 속 생각에서 믿음 갖지 말고 우리 속으로 생각하면 믿음 못 갖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져라란게 뭔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믿으란 얘기에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안의 믿음이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번역 해놨지만 제가 번역 한다면은 하나님 안에서 믿으라 이렇게 할거예요. 근데 번역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믿는다 그럴때 believe in 나오죠 believe in. in 이란거 속에서 믿는거예요 그게. 우리가 내 이성 속에서 믿으라면 죽어도 안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이성 속에서 믿을라 그러니까 안되는거예요. 알고 믿을라고 그러니까 안되는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가 세개 달린 괴물이라는거예요. 자기네들 볼 때 그렇게 보이는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그게 알아 지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됐습니다. 아멘? 이제 영화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를 입양할 것을 예정 했죠? 입양. Adoption 이 나오는거예요. adoption 입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싸인했어요. 확 싸인. 너는 내

아들 싸인했어요. 왜? 이미 이런 죄를 용서 하셨고 계속 구속 전가 화목 의롭게 되고 중생해서 영적 할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됐고 영화롭게 되었는데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adoption, 입양을 한거예요. 그렇죠? 입양. 그래서 우리 예베소서 1 장 4 절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가 흠없게 된거는 그리스도 안 밖에 없어요. 세상에선 안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 여러가지 피 흘림과 죄 용서와 의롭게 됨과 중생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 넣어 준거예요. 아멘? 믿을 때! 이게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예요 이게 바로. 믿는 순간에 이런 일이 싹 이루어 지는거예요. 아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해 놓으면요 탁 클릭하면은 그대로 되는거죠. 그런데 속에서는 복잡해. 막 복잡한데 속도가 빠른거는 그냥 찰칵되고 내 컴퓨터같이 늦은거는 좀 천천히 되고 그렇죠? 요즘엔 좀 빨라졌지만. 마찬가지로요. 어떤 사람은 빠르게 이걸 알고 탁 알고 복음 전할 때 이걸 아니까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늦어 가지고 요려고 그러다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가? 아이 목사 전도사들이 왜이리 결령해? 나 그래서 예수 안 믿을거야. 그러면 그런가. 그러나 이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냥 거기다 대고 말이죠 깨우쳐 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지식이 왜 필요하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 이 진리로 인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확실히 알고 할 때 내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마디 할 때 역사 하는겁니다. 믿음의 말씀이 역사 하는거죠.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는건 역사가 아니예요. 그냥 믿음으로 꽃을때 말씀이 그 심정에 꽃혀 지는거죠. 그래서 입양 될 것으로 예정 했어요 우리를. 아직 입양은 안됐어요. 싸인을 했지만. 입양 되기로 예정 했다. 이거 뭐죠? 주님이 오실때 하늘에 갈 때 되는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에서 뭐 미국에 입양만 되도 참 좋은건데. 우리는 이미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the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 뭐 양반 뭐 이런거 받아도 소용 없어요. 우리 처갓집도 양반이다 그러더라고. 파평 윤씨가 양반이래. 그래서 거기는 영의정 까지 했다는데 우리는 진사까지 밖에 못했어. 근데 주님 볼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김씨나 송씨나 뭐 이씨나 윤씨나 똑같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우리 족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족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입양이 된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떡해 이걸 다 깨닫는 사람은? 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몸동아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cruxifixion 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이 모든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못 박아요. 나 자신을 못 박는다. 우리 로마서 6 장 6 절 보겠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자신을 못 박아요. 죽은거 못 박으면 어때요? 이미 죽었는데. 6 장 6 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이상 우리가 더이상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하나? 그 화장실에 빠졌던 사람 있잖아요? 화장실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거길 들어 가겠어요? 화장실 냄새가 그렇게 오래 간데. 나는 안빠져서 몰라. 화장실 냄새가 그렇게 난다는거야. 몇달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빠졌던 사람이 또 거기 갑니까? 죽으면 죽었지 거긴 안가요. 이 죄를 통해서 내가 참 죄를 깨닫고서 구원 받은 사람은 세상에 제일 고통스러운게 죄 짓는거예요. 그걸 안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힌걸 깨달은 사람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 장 20 절.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자기를 못 박는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결국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욕정을 십자가에 못박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게 결국은 이 진리를 훤히 알고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럴때 자신을 못 박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못 박는 삶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옛날에 로마에서요 가장 큰 형벌이 뭔가하면 사람을 죽였을때 자기가 죽인 사람을 등에다 짊어지고 쇠사슬에 묶여 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평생을 다니는거야.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잘 때도 같이 자야돼. 여러분 우리 몸이 그런 죽은 몸입니다. 죽은 몸하고 이게 자고 그러는거야. 먹고 그러는거야. 하 냄새가 나는거야. 입에서 막 냄새가 나는거야. 몸에서 나오는거 있잖아요. 죄의 말이 나오고 말이죠. 속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요? 빨리 쳐가지고 없애 버려야 되는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죠? 못박아 놓고 너 여기있어. 그래 가지고 결국은 내가 육신안에 비록 살지만은 믿음으로 살 때 결국 우리 육신도 죄의 냄새를 만나게 하고 거룩한 주님의 향기를 내게 되는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의 육신 안에 살아도 영적 할례를 통해서 내가 분리 됐기 때문에 죄와 상관 없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죠.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할려고 해도 안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쿠바 갔을때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웨이터가 딱 오더니 그러는거예요. 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 분이 전도하면 안된다 그랬는데, 지금 내가 감옥에 가면 안되는데 어떡하지? 주님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웨이터가 딱 오더니 나한테 할 말 있다. 무슨 말이냐고? 내가 말을 못 하니까 크리스토 목사 오라 해가지고 통역 해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좀 어떡하면 착하게 살까? 그게 아주 고민이라는거예요. 어떡하면 내가 좀 거룩한 삶을 살까? 그러다 뭐라한다면 성경이 있으면 성경에 그런 말이 많다는데 그걸 좀 읽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좋아. 자기가 제발로 찾아 왔으니까. 아이고 그렇게 좋더라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있었으니까 아시지만 사모님도 있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영접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권 주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 양반이 다 얘기 해줬어 종업원들한테. 다 얘기한거야. 그러니까 종업원이 다 온거야 성경 달라고. 다 모였어 일도 안하고. 다 모여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설교를 했잖아요. 깜짝 놀랬지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그것밖에 모른는데. 그래 가지고 영접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20 권을 나눠줬어요. 20 권. 그래서 그 형제보고 그랬어요. 오케이 당신이 여기 책임자야. 책임자니까 쉬는 시간에 다 모아 놓고 성경을 읽어 그냥 창세기 부터. 쪽쪽 읽어 가라고. 내가 다음에 오면 확인 할거니까. 읽어 가라고. 당신은 굉장히 축복 받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음 번에 가면 제가 확인 하려 그래요. 가끔 그 형제들 사진을 봅니다. 어떨때 제 컴퓨터에다 이렇게 스크린에 같이 찍은 사진 놓고서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요. 여러분 컴퓨터 앞에 그 face 나오는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기도 할 사람들 놓고 가끔 보고 기도 하세요. 참 좋더라고요. 어떨때는 저 유카탄 바다를 딱 놓고 기도하고. 어쩔때 집회 장소도 탁 놓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 하고. 컴퓨터를 그렇게 이용 합시다. 아멘? 뭐 고기들 왔다 갔다 하는것 놓지 말고. 그 쓸대 없이 고기들 왔다 갔다하는 그런 이상한 그림 놓지 말고 말이에요. 요즘 뭐 젊은 애들은 이쁜 여자 탁 놓고 그냥 쳐다 본다는데 맨날. 그러지 말고. 우린 정말 기도 제목인 사람들을 놓고 계속 기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Salvation, 그러므로 죄로 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과 불못으로부터. 죄로 부터 구원 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능력으로

부터 구원하시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죄 있는 세상 잘있거라 나는 가노라. 천년 왕국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